

## 2025년 4월 6일 사순 제5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좋으신 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가련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 우리 마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성가 : 226번 ‘하느님 자비하시니’

###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 독서 : 이사야 27장 43장 16절-21절

화답송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서 : 필리비서 3장 8절-14절

### 복음 환호송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 복음 8장 1절-11절

강론 :『가톨릭 안동』‘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현되신’

영성체 성가 : 187번 ‘천사의 양식’

### 영성체 후 묵상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에 이르도록 합시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7번 ‘십자가 바라보며’

## **2025년 4월 13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 신비에 동참합시다.

### **입당성가 : 10번 '주를 찬미해'**

####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제 1 독서 : 이사야 50장 4절-7절**

**화답송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제 2 독서 : 필리피서 2장 6절-11절**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 복음 : 루카 22장 14절-23절. 56절**

**강    론 :『가톨릭 안동』‘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340번 ‘봉현’**

**영성체 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 **영성체 후 묵상**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 2025년 4월 17일 /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수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를 드시면서 자신을 기억하며 행하라고 명하신 성찬을 거행하는 날이다. 저녁에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체성사의 뜻을 헤아리며 이 전례를 한다.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이 미사에서 성체성사의 신비와 사랑의 새 계명을 묵상하고, 발 씻김 예식에 참여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성체 보관 장소(수난 감실)로 옮겨 모신 성체 앞에서 밤새 깨어 조배하며, 당신 자신까지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 입당성가 : 169번 ‘사랑의 성사’

###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고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 1 독서 : 탈출기 12장 1절-8절, 11절-14절

화답송 : ◎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1장 23절-26절

###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 요한 복음 13장 1절-15절**

**강 론 :『가톨릭 안동』‘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122번 ‘구원의 십자가’**

**영성체 성가 :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 **영성체 후 묵상**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 2025년 4월 18일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전례는 말씀의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미리 독서자와 수난 복음을 나누어 읽을 사람을 배정하고 경배용 십자가를 준비한다.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 수난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되신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 입당성가 :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본기도** (“기도합시다!” 없이)

+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풀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 제 1 독서 : 이사야 52장 13절-53. 12절.

**화답송** : ◎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제 2 독서 : 히브리서 4장 14절-16절. 5장 7절-9절.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복음 : 요한 18장 1절-19절. 42절**

**강    론 :『가톨릭 안동』‘복음 말씀’ 참조**

### **보편지향기도**

**안 내 :**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수난의 길을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합시다.  
모두 일어섭니다. (주례자는 아래 기도를 정성되이 바친다.)

#### **1) 교회를 위한 기도**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펴져 있는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었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 주시고, 온 세상에 펴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2) 교황을 위한 기도**

†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만사는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어,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3) 성직자들과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

† 우리 주교 ( )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 주시어, 주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4)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

†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것을 한데 모으시고 지켜 주시니, 주님의 양 떼를 돌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된 모든 형제를 신앙과 사랑의 끈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5)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고, 앓는 이, 굶주린 이, 옥에 갇힌 이,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 주시며, 임종하는 이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근심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오니, 온갖 환난을 겪으며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십자가 경배**

**안 내 :** 이제 우리는 십자가 경배 예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표지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살도록 다짐하며 십자가 경배 예식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주례자가 제단 가운데에 서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아래와 같이 외칠 때마다 교우들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크게 응답합니다.

(주례자)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세번)

(교우들) 모두 와서 경배하세. (세번)

(주례자는 십자를 제단 가운데 모셔 놓고 앞으로 나와 깊이 절하며 경배한다.)

**십자가 경배 예절 안내 :** 이제 한 분씩 제단 가운데로 나와 십자가 앞에서 고개 숙여 깊이 절하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드립시다.

(\*성가 125번 ‘거룩한 주의 십자가’)

**영성체 성가 : 152번 ‘오 지극한 신비여**

### **영성체 후 묵상**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더냐?

무엇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더냐? 대답하여라.”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간구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 2025년 4월 20일 / 주님 부활 대축일-파스카 성야

- \* 주례자와 해설자는 미리 전례 안내를 읽고 준비한다. (매일미사 참고)
- \* 신자들은 개인 초를 준비합니다.
- \* 주례자는 전례를 시작할 때 불을 모두 끈다. (손전등 준비)

### 입당 전 안내

그리스도 우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를 맞이한 우리는 일곱 개의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의 서간을 봉독하며 하느님께서 긴 세월 동안 이끄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온 구원의 현실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이 미사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됩시다.

###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 매일미사 참고)

####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빛의 예식 안내 :**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이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 주례자는 화로가 준비된 곳으로 나와서, 불을 축복하는 기도를 바치고 부활초에 불을 당긴다.

#### 행렬

- 불 축복 후 주례자는 먼저 부활초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부활초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외치면 교우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한다(3번).

(두 번째 외침 후 교우들이 부활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붙입니다.)

#### 파스카 찬송

#### 말씀의 전례

**말씀의 전례 안내 :**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 제 1 독서 : 창세기 1장 1절-2장 2절

**화답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모두 일어섭니다.

### 1독서 후 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 제 3 독서 : 탈출기 14장 15절-15장 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생략하고 바로 화답송을 한다.

**화답송** :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모두 일어섭니다.

### 3독서 후 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루신 기적을 오늘도 보여주시니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새로 나는 세례의 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으시어 온 세상 사람이 선택된 민족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제 7 독서 : 애제키엘 예언서 36장 16절-17절, 18절-28절

**화답송** :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모두 일어섭니다.

### 7독서 후 기도

† 기도합시다. 영원한 빛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놀라운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굽어보시고 영원으로부터 마련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시어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낡은 것이 새로워지며 만물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전해짐을 온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구약의 마지막 독서와 화답송과 기도가 끝나면 부활초의 불을 제대초에 붙이고 대영광 송을 시작한다.**

### 대영광송

###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저희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서 간 : 로마서 6장 3절-11절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  
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복 음 : 루카 복음 24장 1절-12절

## 강 론 : 교구장 부활 메시지 참조

### 세례 서약 갱신

(※매일미사 참고)

**안 내 :**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세례 때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  
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들의 신앙을 서약합시다.

†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 시기를 마치며, 마귀와 그 행실을 끊어 버리고, 거룩한 가톨릭교회 안에  
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합시다.

†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동정 마리아께 임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 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 아멘.

## 보편지향기도

예물준비성가 :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영성체 성가 : 31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태어남에 무슨 뜻이 있으랴.  
오, 놀라워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자비.  
오, 크시어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  
종을 속량하시려 아들을 내어 주셨네”.  
파스카 촛불처럼 빛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파스카 신비를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6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 2025년 4월 20일 / 주님 부활 대축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벽찬 기쁨을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입당성가 :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 대영광송

###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말씀의 전례

제 1 독서 : 사도행전 10장 34절. 37절-43절.

## 화답송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제 2 독서 : 콜로새서 3장 1절-4절

### 부속가

<오늘은 의무이고, 팔일 축제 동안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 복 음 : 요한 20장 1절-9절

## 강 론 : 교구장 부활 메시지 참조

예물준비성가 : 135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영성체 성가 : 165번 ‘주의 잔치’

### 영성체 후 묵상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고쳐 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도 굳게 믿고 이웃에게 전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8번 ‘만왕의 왕’

## 2025년 4월 27일 /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우리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음을 물리치시고 살아 계신 분을 만나 뵙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악행의 끈을 끊고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입당성가 : 139번 ‘알렐루야’

### 대영광송

### 본기도

†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말씀의 전례

제 1 독서 : 사도행전 5장 12절-16절

### 화답송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주시네. ◎

##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 1장 9절-13절, 17절-19절

부속가<자유로이 바침. 매일미사 p194 참조>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알렐루야.

## 복 음 : 요한 20장 19절-31절

## 강 론 : 교구장 부활 메시지 참조

예물준비성가 : 132번 ‘감사의 송가를’

영성체 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 영성체 후 묵상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의 발 앞에 엎드려  
토마스 사도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